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5000년에 걸친 카레의 여정

인도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후추를 비롯한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신비로운 작물을 유럽에 처음 알린 사람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동방 원정에 나선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차지하며 대제국을 건설한다. 이 과정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식물학자 친구를 대동해 점령지의 다양한 향신료를 수집하도록 했다.

향신료가 유럽에 알려지면서 인류 역사는 급격한 지각 변동을 겪는다. 인도에서 무역풍을 타고 이집트에 도착하는 향료길이 개발되고,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향신료는 유럽으로 퍼져 나갔다. 1세기 유럽에 수입되는 물품의 절반 이상은 향신료였고 그 대부분을 인도에서 들여온 후추가 차지했다.

로마에 도착한 후추는 금과 같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당시 향신료의 유통은 아랍 상인들이 인도에서 로마까지 옮기고, 이를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구입해 유럽 전역에서 되파는 중계 무역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후 베네치아 상인들은 11세기 후반부터 200년간 진행된 십자군 원정을 통해 향신료 시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결국 베네치아 상인들은 15세기까지 향신료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다.

사정이 이러하자 유럽 각국은 베네치아를 거치지 않고 인도의 향신료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개척하기에 이른다. 좀 더 싼값에 향신료를 구하려는 유럽 각국의 의지는 바야흐로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된다. 가장 먼저 성과를 낸 곳은 해양 강국 포르투갈이었다.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는 희망봉을 돌아 1498년 인도에 도착한다. 이때부터 후추 교역에 있어 베네치아의 독점적 구조가 깨지고 포르투갈의 시대가 열린다.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 역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다.

그러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쥐고 있던 향신료 교역의 패권은 채 100년을 넘기지 못한다. 1588년 스페인 제국의 무적함대가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군에게 패함으로써 관련 항로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차지가 된다. 이후 두 나라는 동인도회사를 세워 영국은 인도를,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향신료 교역을 독점한다. 당시의 향신료 교역은 한 번의 항해로 100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한편 인도에서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던 영국인들은 새로운 발견을 한다. 인도 음식에서 사용되는 향신료는 약 3000여 종. 이처럼 많은 향신료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각각의 조합을 통해 거의 무한대의 맛을 창조한다. 향신료를 수천 년 동안 다뤄 온 인도인들은 경험을 통해 지역마다 집집마다 다른 조합을 만들어 냈다. 이 조합을 일컬어 '마살라'라 한다. 영국은 이 마살라에 주목했다. 하지만 영국인에게 다양한 향신료를 조합해 기호에 맞는 마살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누군가 영국인의 기호와 식생활에 적합한 마살라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18세기 말 C&B(크로스 앤드 블렉웰)라는 식품 회사에 의해 세계 최초의 '커리파우더'가 개발된다. 그러니까 커리파우더는 영국 스타일로 조합한 마살라인 셈이다.

이때부터 부의 상징이던 향신료는 대중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식재료가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버터에 밀가루를 볶은 루(roux)를 카레파우더와 조합하는 조리법이 개발됨으로써 온전히 서양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커리파우더를 이용해 만든 '커리스튜'는 조리가 간편하고 상할 염려가 없어 선원들의 식사로 적합했다.

19세기 말에 창설된 일본의 근대식 해군은 영국 해군을 모델로 했고 심지어 배에서 먹는 음식까지 따라 했다. 영국 해군의 '커리스튜'를 모방해 자신들만의 '카레'를 만들었다. 17세 때 이를 처음 맛본 야마자키 미네지로는 영국식이 아닌 일본인의 기호에 맞는 마살라에 도전했다. 커리파우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향신료의 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배합 비율, 향신료의 특성에 따른 볶는 시간, 그리고 적정한 숙성 기간을 찾아내는 꽤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야마자키는 3년의 시행착오 끝에 1923년 결실을 본다. 제품의 명칭은 커리파우더를 일본식 발음에 맞게 '카레파우다'로 바꾸고 회사의 이름까지 C&B를 모방해 S&B(선 앤 버드)라고 명명한다.

이후 카레파우다는 일본인의 식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았다. 우선 쌀밥과 만나 카레라이스가 탄생한다. 이어서 카레빵, 카레고로케, 카레우동, 돈카츠카레, 카레라면 등을 차례로 만들어 낸다. 향신료의 종주국 인도는 물론이고 영국과 프랑스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기발한 음식이다. 1950년부터 출시된 즉석 카레와 레토르트카레는 대중화를 넘어 카레가 일본의 국민 음식이 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일본의 '카레 열풍'은 바다 건너 한국에까지 전해진다. 오뚜기식품은 1969년 '즉석카레'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카레가루를 생산하게 된다. 한국 역시 일본만큼이나 카레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쌀밥이 주식이었던 까닭에 카레라이스는 순식간에 대중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카레는 한국에서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기막힌 파트너를 만난다. 바로 김치다. 카레라이스와 적당히 익은 김치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환상의 조합이다.

그래서 나는 카레라이스를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 인간의 운명만큼이나 음식의 운명 또한 예측할 수 없다. 5000년 전 향신료를 조합하던 인도인들은 카레가 한반도에서 밥과 김치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맛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인턴 오적(五敵)

조 안 영
조안성형외과 원장

인턴 오적(五敵)이란 것이 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乙巳五賊)을 빗대, 인턴에게 공공의 적인 레지던트를 일컫는 별칭이다.

15년 전 나는 그 중 인턴 일적(一敵)이었다. 최근 모두 얼굴이 불콰해진 술자리에서 불현듯 후배가 그 얘기를 꺼냈다. 후배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형(선배)은 그때 형편없었다', 또는 '인성이 별로였다'정도로 들렸다.

"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게 열심히 일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환자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좀 불콰해진 얼굴로 후배에게 되물었다.

"알죠, 그건. 제가 제일 잘 알죠. 안 그랬다는 게 아니라…. 형 기준으로 애들을 판단한 거죠…. 잘 한 애들만 편애하고…."

그랬던 것 같다. 그래, 그랬다. 그런데 후배의 기억과 내 생각 사이엔 틈이 있었다. 그게 뭘까 고민하다가 '증오'란 단어를 떠올렸다.

나는 의사이면서 의사를 증오했다. 그 이전에 의사를 증오했기에 의사가 됐다.

15년 전보다 10년을 더 거슬러 가면 대입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날 아버지가 교통 사고를 당했다. 나는 응급실도 없는 조그만 개인 병원에서 구급차로 실려 온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만났다.

의사로 보이지는 않으나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차디찬 엑스레이 테이블에 아버지를 아무렇지 않게 던지고 굴리고 있었다.

보호자가 미성년인 나밖에 없어서, 나는 해가 지도록 차가운 병원 대리석 바닥에 앉아 울었다. 타지에 있는 어머니가 뒤늦게 오셔서 수납을 하고 나서야 아버지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질 수 있었다.

그제야 대학병원에서 CT를 찍고 뇌출혈을 발견한 아버지는 수술보단 약물치료를 하자는 말에 중환자실로 옮겨져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의사들은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와서 아버지를 꼬집고 때리기를 반복했다. 지금이야 그게 의식상태(Mental Status)를 측정하는 거란 걸 알지만, 당시의 나는 치료는 하지 않고 매일 꼬집어대는 의사, 간호사에게 적잖은 반감이 들었다.

아버지의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아침회진을 끝낸 1년차 신경외과 전공의가 어머니에게 큰소리를 냈는데, 지금도 그 말이 생생하다.

"아니, 왜 당뇨있다고 말 안 했어요? 네?…."

"예? 당뇨요? 말 안 했나? 미안해요.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정말 죄인처럼 대답했다.

'각인'이라는 말이 있다. 갓 난 짐승이 제 어미를 평생 기억하는 순간 말이다. 그 순간이 그랬다. 아버지가 이런 게 왜 어머니 탓이 되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 후 다시 공부를 해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공부를 하는 동안 당시의 상황에 맞는 수업을 들을 때마다 그때의 기억을 하나씩 재생했다.

아마도 아버지의 주치의는 고농도 포도당을 쏟아 부어 삼투압으로 뇌압을 높이고 있는 혈종을 줄이려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는 환자의 병력을 알아보지도 않고 치료를 결정했고, 책임을 보호자에게 미뤘다. 그 전 개인병원은 사설 구급차 운전사를 매수해 위급한 교통사고 환자로 돈벌이하기에 급급했다. 그랬다. 나는 의사를 증오했다. 그들이 의사 같지 않은 의사라고 생각했다.

나는 주치의를 하는 16개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오전 6시가 되면 드레싱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인턴들에게 채혈을 하거나, 환자의 검사 결과를 챙겨두도록 지시했다. 나는 그런 지시조차 따르지 못하는 인턴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의 지시였지만, 그건 환자와의 약속이기도 했다.

의사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약속된 환자의 처치를 어긴 인턴은, 당시의 내 생각으론,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의사도 인간인데…, 실수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우려는 건데…"

나는 이 말도 이해할 준비가 안 됐던 것 같다. 그건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반면 다른 주치의와 달리 나는 인턴에게 한 번도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다. 선후배 이전에 의사니까.

"글쎄, 그땐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나도 후회해."

나는 후배에게 말했다.

요즘 의료계에 이슈가 되는 멍투성이의 레지던트 사진을 보며, 드는 생각이 많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은 일일 수 없다. 교육이 그 목적이라도 그건 폭력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항상 말한다. '너 잘되라고 그랬던 거다' 라고. 주치의 시절 나도, 내 언어도 폭력은 아니었을까?

기 고

환경미화원들의 눈물을 닦아주자

조 귀 임
전 초등학교 교사

여명이 밝아오기도 전인 새벽 5시. 어둠을 뚫고 커다란 트럭에 몸을 싣고 동네 구석구석을 훑고 다니는 환경미화원들. 쓰레기들이 봉투에 안 담겨 있고 흐트러져 있어도 일일이 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섞인 경우는 난감하여 경고장도 붙이지만 그만큼 일이 많아져 수거작업이 길어진다.

봉투 안에 든 유리나 못에 찔리는 일도 있고, 무게가 꽤 나가는 봉투들을 옮기다 보면 뼈나 근육이 다치기 십상이며,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은 도로를 달리는 차에 자주 치어서 숨지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들만이 겪는 눈물이고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 보인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 화실 앞 큰 도로 건너편 두 골목 입구에는 항상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봉투를 아끼려고 봉투에 제대로 넣지 않고 마구 갖다 버려서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그걸 매일 치우는 환경미화원은 얼마나 짜증나고 울분이 터지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속보이는 짓인가. 자기들도 떳떳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울 텐데 말이다. 이들은 양심을 쓰레기더미에 버린 것이다.

오가는 행인들이 혀를 끌끌 찬다. 어른 보고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부끄럽다. 버리는 손 따로 있고 치우는 손 따로 있다니 불공평하다. 그분들의 고충과 노고를 안다면 쓰레기 버리는 일에 획기적인 변화가 요망된다.

벌금을 물리거나 쓰레기 수거를 안 하면 고질적인 악습이 고쳐질까. 자신이 아니면 가족이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 분리 수거일이다. 신문지나 박스는 노끈으로 가지런히 묶어서 내놓고, 플라스틱이나 빈 병 속은 깨끗이 헹구고 쇠붙이는 비닐봉지 안에 따로 담아서 넣고 수거봉투를 묶어서 내놓는다. 길거리를 오가며 내놓은 재활용품을 수거해 고물상에 팔아서 적은 돈이나마 생활에 보태는 노인들이 많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봉지를 풀면 좋을 텐데 찢어서 필요한 것만 쏙쏙 꺼내 가는 얌체족들도 있다. 행동거지가 얄밉고 괘씸하다.

초겨울은 창공도 푸르고 단풍도 꽃보다 아름답지만, 우수수 떨어져 뒹구는 낙엽은 도롯가에 수북이 쌓이고 바람에 날려서 지저분하다. 떨어진 은행 열매도 깨지고 뭉개져서 냄새 나고 지저분하다. 매일 낙엽을 쓸고 또 쓸어도 끝이 없다. 미세먼지를 그대로 흠뻑 들이마신다. 일 년 중 가장 일거리가 많아서 힘들어 보인다. 광고 전단, 담배꽁초, 연탄재, 김장철까지 가세해서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다.

환경미화원들의 일은 부끄럽거나 감출 일이 아닌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지금은 취업문이 좁아져서 명문대 졸업자들도 선호하는 유망 직종이 됐다. 그래서 보수나 사회 인식이 달라져서 도리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임무에 임할 수 있어 천만다행이다.

일상 생활 중 생활주변부터 청결히 하고, 내 집 앞 쓸기와 쓰레기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분리 수거에 앞장서며 물자를 아껴 쓴다면 고마우신 환경미화원의 일손을 돕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아침에 마주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는 환경미화원들의 값진 땀과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공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려면 국가와 국민의 배려와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社 說

광주 시장의 '통 큰 지원' 이것이 상생이다

광주시는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는 지역에 4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이전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문화 기반 시설 확충,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들고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온 후보지 선정 작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윤장현 광주 시장은 현재 광주 군 공항 부지 재산 가액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4500억 원 전액을 이전 주변 지역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와 수원 등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특히 3.6㎢(110만 평)에 달하는 소음 완충 지역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해 그 수익을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군 공항이 이전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도 다양하다. 상·하수도와 도로, 영농 시설을 확충하고 유통 시설과 문화 공원, 복지·체육 시설 등이 조성된다. 학교 환경 개선과 로컬 푸드 매장 및 국방 산업 유치 등도 곁들여진다.

공항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새로운 군 공항은 광주 군 공항보다 1.8배 크게 건설해 소음과 고도 제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안을 전남의 이전 후보 지역에 설명하며 적극적인 접촉에 나섰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틀에서 슬기롭게 풀어야 할 사안이다. 광주시가 '통 큰 지원책'을 마련한 만큼 전남도도 후보지 시·군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최근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에 포함되면서 새 전기를 맞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광주 공항의 국내선 이전 문제와 함께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정부의 국정 과제인 만큼 국방부와 공군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기부 가로막는 까다로운 절차·규정 보완을

내가 번 돈을 기부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하거나 기부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어떻게 할까? 대부분 그냥 포기해 버릴지도 모른다. 가령 겨울철 폐지 줍는 노인들이 안쓰러워 내복을 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돼지 저금통을 부순 고교생이 있다면, 이 학생은 어디에 기부해야 할까? 공부에 쫓기는 학생 입장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이 마땅하겠지만 이곳에선 기부금을 받지 않는다. 일단 시청부터 찾아가야 한다.

까다로운 절차가 기부 문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최근 결식아동 돕기 캠페인을 벌여 모은 성금 3000여 만 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하려 했으나 교육청의 거부(?)로 무산됐다. 현행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또는 출자·출연 법인·단체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단 기부자가 사용 용도 및 목적 등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한 경우에 한해 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할 수 있다. 통상 심의를 마치는 데에는 15일이 걸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할 수 없이 기부 심사위에 심사를 의뢰한 뒤 교육청에 전달키로 했다.

기부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공공기관들이 '갑'의 위치에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후원을 강요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특정 마을 주민이나 기업이 자신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소방대원들을 위해 기부할 때, 코앞에 있는 기관을 놔두고 시청까지 찾아가야만 한다면 얼마나 불편한가.

기부는 그 목적이 순수하다면 후원자들이 원하는 공공기관에 직접 기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다만 후원자가 대상·용도를 정확히 지정하지 않을 경우는 접수 기관이 상위 기관인 광주시에 기부금을 보내 용도를 지정받으면 될 것이다.

無 等 鼓

다이내믹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의 행동 가운데 가장 큰 특징으로 '빨리빨리'를 꼽는다. 이는 현재의 불편함을 즉각 해소하거나 원하는 바를 기다림 없이 서둘러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덕분에 초고속 경제 성장, 기술 발전, 생활 편의 증진 등 다른 어느 국민도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었다.

정부가 지난 2002년 30억 원을 들여 만든 국가 브랜드 겸 슬로건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다이내믹'(Dynamic)이 한국의 압축 성장과 역동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게 당시 판단이었다고 한다. 변화와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와 어울리게 본연의 것을 바꿔 냄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한다는 의미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2010년 논문 '빨리빨리의 문화정치학 : 한국의 속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에서 빨리빨리의 구조적 동인으로 일극 주의, 군사 주의, 수출 주의, 평등주의, 각개 약진 주의 등을 지목했다. 대부분 공감하면서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현재 최우선 주의'가 아닌가 싶다.

빨리빨리와 다이내믹의 부작용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내면보다는 외형을 중시하고, 미래의 부담을 보지 않고 현재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빈번한 안전사고, 극심한 양극화, 부·명예·권력의 대물림, 도시 공간의 사유화 및 상업화 등도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광주 도시 공간에서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과거는 쓸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디 빈틈만 있으면 고층·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녹지, 공원, 상가, 단독 주택 등이 시멘트 숲으로 바뀌는 모습은 가히 '역동적'이며 '획일적'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 아파트로 이익을 탐하는 투기 세력에 대해 지자체, 의회, 전문가 등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 듯하다.

압축되고,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고,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나와 내 주변에서만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그만 멈춰 서서 천천히 하나씩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윤현석 정치부 부장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